12강. 마음의 세 가지 양태

1. 상상하는 마음의 세계, 혹은 분별된 세계

◇ 상상하는 것에 의해 상상된 모든 것은 ‘상상된 본성(parikalpita-svabhāva)’을 가지며,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유식30송(Triṃśikā)』20

-『중변분별론』은 인간의 마음 상태란 다음 세 가지 상태 중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상상된 본성(parikalpita-svabhāva, 遍計所執性)’으로 설명되는 마음 상태이고, 두 번째는 ‘다른 것에 의존하는 본성(paratantra-svabhāva, 依他起性)’으로 설명되는 마음 상태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적으로 달성된 본성(pariniṣpanna-svabhāva, 圓成實性)으로 설명되는 마음 상태이다.

-바수반두는 첫 번째 ‘상상된 본성’을 분석하려고 한다. “상상하는 것에 의해 상상된 모든 것”이란 표현으로부터 그의 논의는 시작된다. 여기서 “상상하는 것”이란 물론 우리의 마음이나 의식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상상은 구별과 분별을 의미하는 ‘vikalpa’를 번역한 것이다.

-상상하는 의식이란 주체와 대상으로 허구적으로 분별하는 의식을 말한다. 그래서 한자 문화권에서는 ‘vikalpa’를 ‘허망분별(虛妄分別)’이라고 번역했던 것이다. 허구적인 분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상된 모든 것, 특히 중요한 것으로 자아나 대상이란 관념은 상상하는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식(唯識)’이란 개념의 일차적 의미이다.

2. 다른 것에 의존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 마음

◇ ‘다른 것에 의존하는 본성(paratantra-svabhāva)’은 조건이 되는 것들로부터 발생하는 상상이다. ‘절대적으로 달성된 본성(pariniṣpanna-svabhāva)’은 ‘상상된 본성’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다른 것에 의존하는 본성’이다. 『유식30송(Triṃśikā)』21

-바수반두에게 있어 ‘다른 것에 의존하는 본성’에서 ‘다른 것’이란 어떤 개체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거 행위의 흔적이나 습관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상된 본성’이 주체나 대상이란 이분법을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인 마음 상태를 가리킨다면, ‘다른 것에 의존하는 본성’은 그렇게 주체나 대상이란 이분법을 발생시키는 마음 깊숙한 곳의 알라야식의 작용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것에 의존하는 본성”에 속해 있는 마음 상태는 알라야식을 자각하기는 하지만,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그렇다고 해서 '그(혹은 그녀)'를 대상으로 그리고 그 대상을 향유하려는 자신을 주체로 구별하고 분별하는 마음 상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지는 못했다.

-바수반두는 이 상태에서 주체와 대상이란 이분법이 작동하기를 그칠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절대적으로 달성된 본성"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해보자.

<절대적으로 달성된 본성>=<다른 것에 의존하는 본성>−<주체와 대상이란 이분법>

-바수반두에게 있어 진정으로 존재하는 상태는 '절대적으로 달성된 본성'뿐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적으로 달성된 본성" 상태에서 대상으로 분별된 모든 것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본성을 되찾게 되며, 동시에 주체로 분별된 자신도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회복하게 된다.

3. 다른 것에 의존하는 마음과 그것을 넘어선 마음 사이의 관계

◇ 그런 이유로 '절대적으로 달성된 본성'은
'다른 것에 의존하는 본성'과는 다른 것도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은 무상함과 유사하다.
'절대적으로 달성된 본성'이 지각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의존하는 본성'도 지각되지 않는다.
『유식30송(Triṃśikā)』22

-"절대적으로 달성된 본성"은 주체와 대상이란 분별이 영원히 제거된 상태의 "다른 것에 의존하는 본성"이라는 것이다.

-22번째 게송의 쟁점은 '절대적으로 달성된 본성'과 '다른 것에 의존하는 본성'이 다르지도 그렇다고 같지도 않다는 바수반두의 생각이다.

-'무상'이란 추상 개념은 '무상한 개체들'로부터 개체성을 제거하고 사유될 수 있는 것이다. '무상'이란 개념은 '무상한 개체'와 다르지도 그렇다고 해서 같지도 않은 것이다.

-'다른 것에 의존하는 본성'으로부터 주체와 대상이란 이분법이 제거된 상태인 '절대적으로 달성된 본성'은 '다른 것에 의존하는 본성'과 같지도 다르지 않다.

-"절대적으로 달성된 본성은 다른 것에 의존하는 본성과 다르지도 같지도 않다"

4. 세 가지 본성은 사실 본성이 아니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세 층위의 본성에 상응해서
또한 세 층위의 무본성(niḥsvabhāvatā)이 존재한다.
세 층위의 본성을 언급하면서
모든 것에는 본성이 없다는 것이 가르쳐진 것이다.
『유식30송(Triṃśikā)』23
◇ 첫 번째 본성[=상상된 본성]은 바로 그 정의에 의해 본성이 없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 본성[=다른 것에 의존하는 본성]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성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본성[=절대적으로 달성된 본성]은 본성이 없는 것이다.
『유식30송(Triṃśikā)』24

-바수반두는 나가르주나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승불교 전통에 속해 있다.

-바수반두가 나가르주나의 공 개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 **'상무자성(相無自性, lakṣaṇa-niḥsvabhāvatā)'** : '상상된 본성'에는 본성이 없다는 것을 '상무자성(相無自性, lakṣaṇa-niḥsvabhāvatā)'이라고 표현한다. 상(相)은 특징이나 정의를 의미하는 'lakṣaṇa'의 번역어이다.

- **'생무자성(生無自性, utpatti-niḥsvabhāvatā)'** : 다른 것, 즉 인연(因緣)에 의존해서 생긴 어떤 것에도 자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나가르주나의 핵심적 가르침이다.

- **'승의무자성(勝義無自性, paramārtha-niḥsvabhāvatā)'** : '절대적으로 달성된 본성'이 '다른 것에 의존하는 본성'과 같지도 다르지도 않는 관계에 있다면, 당연히 이 본성도 '다른 것에 의존하는 본성'과 마찬가지로 본성이 부재할 수밖에 없다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가장 탁월한 경지에서도 자성이 없다는 것이다.

5. 깨달음의 상태는 이해 가능한 것일까?

◇ 모든 것들이 자신의 궁극적인 실재성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것[=절대적으로 달성된 자성]이 또한 진여(tathatā)라고 불린다.
이것은 항상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의식의 표상일 뿐임을 깨닫는 상태이다.
『유식30송(Triṃśikā)』25

-수양을 하는 개체는 자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수양 단계에 대한 명료한 매뉴얼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수양하는 개체는 '상상된 본성'의 상태로부터 출발하여, '과거 행위의 흔적이나 습관'을 자각하는 상태인 '다른 것에 의존하는 상태'에 이르며, 최종적으로 '주체와 대상이란 이분법'을 제거한 상태, 즉 '절대적으로 달성된 본성'의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바수반두는 세 단계의 수양 절차를 명료화하기 위해서 방법론적으로 각 단계의 마음 상태에 대해 본성이란 용어를 사용했던 것이다.

-‘타타타(tathatā)’라는 개념: 여실(如實), 여여(如如), 혹은 진여(眞如)라고 번역되는 이 개념은 “있는 그대로”라는 의미, 순수한 현전성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